

파리 프티 생튀르 폐철도 부지의 재정비

권인석

파리 라브레트건축대학·파리1대학 연합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파리시와 프랑스 철도청이 주도한 프티 생튀르 산책로 조성사업은 역사적 유산이며 녹지가 풍부한 프티 생튀르의 인근 시민들에게 일 상에서 자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또한 폐철도의 환경재정비를 통해 친근한 공간을 조성 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는 파리시 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폐철도 사용 및 생태적 도시 경관을 위한 녹지축으로서의 가치 부여

현재 총 32km의 프티 생튀르 철도는 파리 수도권의 철도교통으로 부 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뤼에트와 클리시 구간은 RER C가 1988년부터 사용 중이다. 파리시정도시연구원은 18구 일부 구간과 12구의 뱅 센지구에 트램 T8선 연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의 접근성을 개선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 프티 생튀르의 재정비 사업은 대중교통로인 철도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13·14·15구에 이미 설치 된 산책로와의 연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폐철도의 다양한 활용 방법 을 강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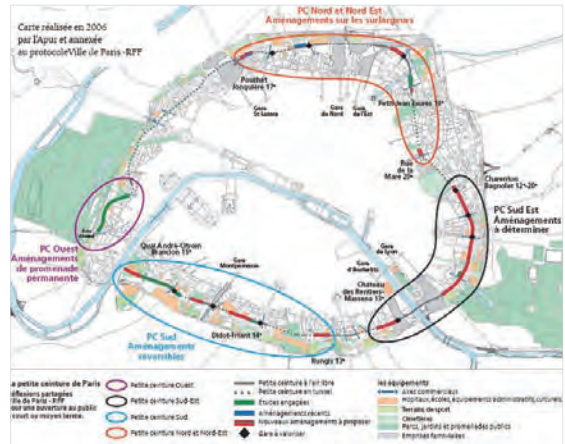
프티 생튀르의 생성 배경

파리시 외곽순환도로(Boulevards des Maréchaux)에 근접한 프티 생 튀르는 1934년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지난 68년 동 안 사용되지 않은 철도다.

프티 생튀르는 1850년경 만들어졌다. 당시 철도망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및 산업수송으로 이용하던 여러 철도 회사들은 철도망의 통합을 필요로 하였다. 또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도 있었으며, 철도를 정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국가사업이 기도 하였다. 이것이 프티 생튀르가 놓인 시대적 배경이다.

프티 생튀르 보존협회장인 장 에마뉼엘은 이 폐철도가 주민들의

프티 생튀르에 관련된 파리의 도시사업



(자료: 파리시정도시연구원(APUR), 프티 생튀르를 이용한 사업 타당성 연구, Etude prospective sur le devenir de la petite ceinture 2012.)

교통수단으로 재사용되기를 원한다. 파리시 역시 녹지축, 근접성, 문 화유산, 교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산책길 조성 사업의 배경

1934년 이후 사용이 전무하던 32km의 철로를 주민들의 요구로 파리 트램 사업과 연계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주거지와 근접해 소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 사업지 후보로만 선정됐을 뿐 더 이상 진척되 지는 않았다.

이에 프티 생튀르의 소유자인 철도청(Réseau Ferré de France)은 파리시와 철로의 재사용을 위한 사업을 2000년부터 협의하였으 며, 2013년에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녹지 조성 등 철도 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프티 생

튀르 산책로는 현존하는 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연 녹지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가로등 같은 시설물 설치에 제한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저녁에는 개방이 제한된다. 현재 3구간(15구와 16구, 12구 일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

15구 구간의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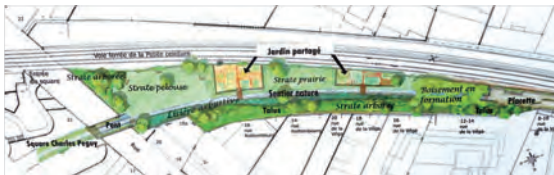
(자료: www.paris.fr)

16구 구간의 마스터플랜



(자료: www.paris.fr)

12구 구간의 마스터플랜



(자료: www.paris.fr)



산책길로 조성된 프티 생튀르

a. 15구 구간(15e arrondissement)

15구에서는 처음으로 900m 구간을 대중에게 개방(2013년 8월 24일)하였으며, 정원축제 때 500m를 추가 개방(2013년 9월 21일)하여 현재 총 1.3km(총면적 3.5ha)의 산책로가 만들어졌다. 조르주 브라상 공원과 시트로앵 공원을 연결하여 파리의 녹지축을 조성하였다. 특히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적 재정비를 하였다.

b. 16구 구간(16e arrondissement)

총 1.5km인 16구[오퇴유-뮈에트(la porte d'Auteuil et la porte de la Muette)] 구간은 블로뉴 숲과 인접하여 자연적인 녹지 조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덕에 다양한 산림을 접할 수 있다.

c. 12구 구간(12e arrondissement)

12구 구간은 샤를 페기 지구에 있는 기존 녹지 정원과의 연결 및 주말 농장과 공공 산책로로 재정비하였다. 총 200m 구간인 이 산책로는 잔디, 화분, 식목 등 3단계의 높이로 재정비하였다. 이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 또는 분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연 생태 중심 개발을 통한 파리의 미래상 설립

파리시와 프랑스 철도청의 주관으로 2015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프티 생튀르 사업지의 나머지 구간 재정비 방향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파리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녹지의 보전'과 '도심 온도 유지' 등 자연생태계를 축으로 한 파리 수도권 기본계획에 맞는 프티 생튀르 재정비 사업이 되도록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